



고창군, 고창갯벌 탐조캠프 성황리 개최

고창군은 지난달 31일부터 6월 1일까지 1박2일간 고창갯벌 일원에서 탐조캠프 ‘갯벌의 숨결을 따라서’를 성황리에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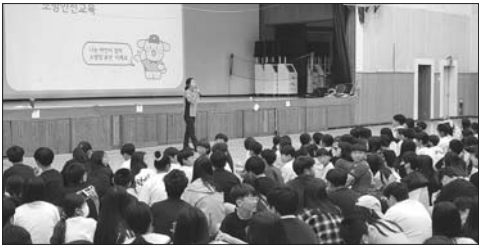
고창갯벌 탐조캠프는 초·중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에서 탐조 활동과 생태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1박2일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신청한 152개팀, 477명 중 최종 선발된 10개팀, 32명의 초·중학생 가족이 참여했다. 특히 신청 시작 3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한편, 고창갯벌은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그 생태적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고창갯벌에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164종, 약 10만여 마리의 조류가 서식하며, 특히 고창군 군조인 빨레비갈매기와 검은머리물떼새 등 법적 보호종의 주요 서식지로 잘 알려져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소방서, 고창초 대상 화재안전 예방교육 실시

고창소방서는 지난달 30일, 고창초등학교 전교생 798명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불이 났을 때 1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으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요령과 119 신고 요령,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엘리베이터와 셔틀버스 등에서의 안전수칙도 함께 다뤄며,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교육의 몰입도를 높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 청하면 지사협, 유공자 가정에 선물꾸러미 지원

김제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유공자 가정 35세대를 방문해 선물꾸러미를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송형석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봉사자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취약계층을 발굴·연계하는 등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설맞이 떡국 꾸러미 지원사업, △어버이날 선물꾸러미 지원사업을 펼친 바 있다. 이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35가정에 선물꾸러미(호두견과·진미채·생강편 등)를 전달하며 희생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푸드 정상화·안정화에 최선을 다 할것”

김종범 신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취임

전주시민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온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이끌어갈 제4대 김종범 센터장이 취임했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인 윤동욱 부시장은 2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이끌어갈 김종범 신임 센터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범 신임 센터장은 “농산물 유통과 지원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산물 판로 확보에 힘쓰겠다”면서 “장기간의 센터장 공석으로 경영 공백이 큰 만큼 조직 안정화에 힘써 전주푸드 정상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특히 김 센터장은 전주의 소비시장을 고려한 농산물 생산·소비 체계 구축과 푸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농업인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협업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신임 센터장은 이날 임명장을 받은 후 학교·공공급식센터 현장점검으로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임기는 오는 2028년까지 3년이다.

이에 앞서 시는 센터장 선임을 위해 지난 3월 공개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와 지난 23



일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임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종범 신임 센터장은 지난 33년간 농협에 재직하며, 전북본부 경영지원팀 차장과 전북산지유통단 단장, 전북경영기획단 참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권희성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사랑의 땀감 나누어주기 실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지난 2일 산림사업지 주변 마을의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땀감 나누어주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사랑의 땀감 나누어주기는 진안군(백운면, 정천면) 2개 면에 걸쳐 숲가꾸기 사업대상지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숲가꾸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물 중 땀감으로 사용 가능한 산물을 모아서 백운면 5세대, 정천면 3대 등 총 8세대를 대상으로 20톤을 화목으로 지원했다.

이성호 소장은 “앞으로도 사랑의 땀감 나누어주기를 통해 산림지원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한편, 화목용 난방연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시민 보호 위한 폭염구급대 운영

남원소방서는 지난 달 15일부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시민 보호를 위해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4년 폭염 관련 구급출동은 271건으로 전년 대비 30.3% 증가했으며, 이에 남원소방서는 구급차 9대를 폭염구급대로 지정하고 펌블런스 차량 5대를 예비출동대로 편성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차량에는 체온을 낮추기 위한 얼음조끼, 얼음팩, 물 스프레이 등 냉각 장비는 물론, 정제수금, 정맥주사세트 등 총 9종의 폭염 대응 장비를 탑재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최승범 구조구급팀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공직자 대상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추진

순창군이 지난 2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023년부터 의무화된 대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소속 유미 전문강사가 2시간에 걸쳐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게임을 통한 ‘틀림과 다름’의 의미 파악을 시작으로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장벽에 대한 이해, 장애 유형별 특성,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기초한 진정한 평등의 의미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강사 ‘장애인이 우리 이웃에 보이지 않는 이유’를 주제로 사회적 장벽의 존재를 설명하고, ‘장애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소수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순창=이왕원 기자

진안군 정천면, 자랑스런 ‘면민의 장 5인’ 선정

진안군 정천면(면장 정재민)은 제41회 정천면민의 날을 맞아 면민의 장 수상자 5명을 선정했다.

지난 5월 27일 면민의 장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공익장 안한길(66. 정천면 조림마을) △효행장 이순재(64. 정천면 하초마을) △애향장 최혁렬(61.서울 방배동) △장수상 이정단(93. 정천면 상조림마을) △산업장 안한표(63. 정천면 상조림마을)씨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효행장 이순재 씨는 오랜기간 뇌경색으로 투병중인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섬기며 남다른 봉양과 효행으로 주변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애향장 최혁렬 씨는 정천재경향우회 사무국장으로서 10년동안 재임하여 남다른 애향심으로 고향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그 공적을 인정받았다.

장수상 이정단 씨는 아흔이 넘은 고령임에도 덕망 높은 인품으로 마을의 큰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존경받고 있다.

산업장 안한표 씨는 인삼발전연구회 및 삼목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인삼농가의 선도역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발전에 기여하여 주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 공익장 수상자 안한길 씨는 현재 정천에서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한기에도 상시 수리 및 출장을 다니며 언제든지 일손에 필요한 농기계 즉시 수리로 면민을 먼저 생각하고 고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면민의 장 수상식은 오는 14일 정천면 체련공원에서 열리는 ‘제41회 안전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 개최된다.

공익장 안한길	효행장 이순재	애향장 최혁렬	장수상 이정단	산업장 안한표
진안군 정천면 상조림마을	진안군 정천면 하초마을	서울 방배동	진안군 정천면 상조림마을	진안군 정천면 상조림마을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885	정읍지사 536-3787
호치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신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5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